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
2024 KBS 방송지표

KBS사보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Vol. 763



KBS가 5월 각양각색의 신규·특집 프로그램을 쏟아내며 편성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KBS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신규 프로그램 라인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KBS의 달라진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AI 커버'를 소재로 한 추리 음악 예능 〈싱크로유〉 ▲장성규·장민호 콤비가 펼치는 로드쇼 〈2장1절〉 ▲상황별 소비 생활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하이엔드 소금쟁이〉 ▲글로벌 보이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Make Mate 1〉 ▲가상의 마을 '조선특별자치구'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대한민국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명맥을 잇는 〈더 시즌즈-지코의 아티스트〉 ▲KBS 프리미어 특집 콘서트 〈김연자 더 글로리〉 ▲직업계고교 학생의 취업과 창업 현장을 조명한 〈스카우트5 얼리어잡터〉이다.

한눈에 보는 신규 프로그램

프로그램
<더 시즌즈-지코의 아티스트> 5월 10일·17일 (금) 23시 25분 5월 24일 이후 (금) 22시 2TV
<2장1절> (수) 20시 55분 2TV
<스카우트5 얼리어잡터> (금) 19시 40분 1TV
<싱크로유> 5월 10일·17일 (금) 22시 2TV
<함부로 대해줘> (월·화) 22시 10분 2TV
<Make Mate 1> (수) 22시 10분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화) 20시 55분 2TV
<김연자 더 글로리> 5월 25일 (토) 21시 15분 2TV

'기대 만발' 장성규·장민호 콤비의 〈2장1절〉

**토크·동네·노래를 한데 결합한 〈2장1절〉이 새롭게 시청자들을 찾아왔다.
임종윤 담당 PD를 만나 〈2장1절〉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Q 〈2장1절〉 어떤 의미인가?

'2장'은 장성규·장민호의 성씨에서 가져왔고, 1절은 인생의 애창곡을 딱 1절만 부른다는 의미이다. 애초에 이 두 MC를 섭외하겠다고 마음먹고 정한 제목이다.

Q 〈2장1절〉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사람 이야기에 노래라는 형식을 추가했다. 장성규·장민호 두 진행자가 지역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애창곡 도전을 권하는데, 성공하면 금반지를 드린다. 단, 가사를 세 번 이상 틀리지 않고 1절을 완창해야 성공이다. 우리는 명창이나 기인, 달인을 찾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이웃을 만나 지역을 소개하고 편안한 웃음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이다.

Q 장성규·장민호 MC를 프로그램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스튜디오에서 대본 중심으로 진행해 온 두 사람을 야외 현장에 풀어놓고 싶었다. '절친'으로 알려진 이들의 장점뿐 아니라 장성규의 진행력과 장민호의 팬덤이 빚어낼 시너지도 고려했다. 장민호는 사람 이야기를 다룬 KBS 다큐멘터리를 자주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제작진과 뜻이 잘 맞았고 기획 의도를 공유했을 때도 크게 공감했다. 장성규는 내공이 탄탄해서, 12시간 이상 촬영에도 현장에서 일정한 텐션을 유지했다. 선을 넘나드는 애드리브는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Q 그동안 시사교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과 느낌이 다르다. 차별점이라면?

회차별 주제는 있지만, 대본은 없다.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의외성을 끄집어 낼 때 재미는 배가된다.

Q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소는?

병원 내부에 있던 재봉실이다. 성가복지병원을 방문했을 때 두 MC가 병원을 둘러보다 우연히 발견한 장소이다. 1990년 병원이 무료 진료로 전환한 뒤 넉넉지 않은 재정 때문에 재봉실에서 전국 의료기관에서 후원받은 옷감을 환자복으로 리폼해 오고 있었다.

Q 〈2장1절〉에 대한 기대가 높다. 포부와 계획은?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들이 반가워할 진행자를 포섭하는 일, 또 하나는 너무 묵직하거나 깊은 이야기보다는 경쾌하지만 울림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전체 16부작을 마칠 때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전국을 누비며 평범하고 다양한 분들에게 마이크를 자주 건네고 싶다.

국내 유일 정통 북한 전문 프로그램 〈남북의 창〉 1000회

35년간 南北의 관찰자·기록자·전달자…사선을 넘나든 생생한 기록 영상

〈남북의 창〉은 1989년 3월 1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난 35년간 분단 현실을 심층 진단·분석하는 남북 관계의 관찰자, 기록자,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영물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북한의 일방적인 체제 선전을 여과 없이 전달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균형감을 갖고 비판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1993년 해외동포들이 직접 찍은 '다시 가본 북녘땅 6부작'은 생동감 넘치는 북한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고, 2015년 인권단체와 동행 취재한 '탈북 루트 10,000km 사선을 넘다'에선 목숨 건 탈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북한 내 인권과 체제 문제의 실상을 세상에 알렸다.

'1000회 특집' 국내 유일 정통 북한 전문 채널

4월 27일에 방송된 1,000회 특집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마련한 특설무대를 배경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특별대담', '동해 탈북민에게 듣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가다' 코너로 꾸며졌다. 특집 방송에선 김정은의 '핵무기 선제 사용' 발언 이후 점점 고조되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난해 10월 목선을 타고 속초로 온 탈북민 4명을 언론 최초로 만나 코로나 시기 북한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새로운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에 대한 북한 내 인식 등을 직접 들어봤다. 〈남북의 창〉은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50분 KBS 1TV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뮤직뱅크 인 벨기에〉 유럽을 열광시키다!



지난달 20일 벨기에의 예술 도시 앤트워프에서 열린 올해 첫 뮤직뱅크 월드투어 콘서트가 성공리에 개최됐다. 'Sweet Night'을 주제로 한 〈뮤직뱅크 인 벨기에〉는 박보검의 사회 아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아이들, 라이즈, 스테이씨, 원어스, 제로베이스원 6팀이 참여했으며, 주제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펼치며 2만 명의 관객과 '아름다운 축제의 밤'을 만들어냈다는 극찬을 받았다. 이날 현장의 열기는 5월 4일(토) 밤 10시 35분 KBS 2TV 〈뮤직뱅크 인 벨기에〉를 통해 시청자들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됐다.

개그콘서트 25년 만에 첫 '전체 관람가'

대한민국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KBS 2TV 〈개그콘서트〉가 어린이날을 맞아 시청 등급을 '전체 관람가'로 낮춰 방영했다. '15세 이상'이었던 시청 등급을 낮춘 것은 1999년 첫 방송 이래 처음이다.

그 배경에는 제작진의 마음을 움직인 초등학생의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개그콘서트 녹화 현장에 가보고 싶은데 나이가 어려 볼 수 없다는 초등학생 시청자의 사연을 접한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전체 관람가' 등급에 맞췄다. 녹화 시간도 평소보다 앞당겨 현장에 어린이 동반 가족 약 1,000명이 참석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정작 편지를 보낸 초등학생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던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녹화에 초대해 좋은 추억을 선사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날 특집 현장 관람 신청자 수는 총 5,340명으로 〈개그콘서트〉 시즌 2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KBS라서 가능!' 세대 아우르는 음악 프로그램

KBS 음악 방송이 젊어졌다. MZ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코의 〈더 시즌즈〉,
아이돌 도전자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Make Mate 1〉,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연자의 특집 콘서트를 소개한다.

더 시즌즈-지코의 아티스트



"데뷔 후 오래 전부터 가장 꿈꿨던 무대는 KBS 음악 토크쇼였다." 솔로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게 된 가수 지코가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의 다섯 번째 막을 열었다. 제작진은 "MC 지코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알려진 만큼 해외 아티스트를 섭외해 '더 시즌즈'의 브랜드를 세계로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 시즌즈'는 그동안 네 개의 시즌을 박재범·최정훈·악동뮤지션·이효리가 각각 진행해왔다.

▶ 5월 10일·17일(금) 23시 25분 / 5월 24일 이후(금) 22시 KBS2

Make Mate 1



〈Make Mate 1〉은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태국 출신의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아이돌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그룹 '엑소'의 시우민이 단독 MC를 맡았고 그룹 '마마무'의 솔라, 래퍼 한해, 댄스크루 '위댐보이즈'의 바타와 인규가 멘토링에 나선다. 〈더유닛〉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만큼 제작 추진과정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였다. 총 제작비 85억 원 중 80억 원을 외부 펀딩으로 모았으며, 일본 OTT 플랫폼 '아베마TV'를 통해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 5월 15일(수) 22시 10분 첫 방송 KBS2

김연자 더 글로리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김연자의 특집 콘서트가 KBS 무대에서 펼쳐진다. 〈김호중 더 심포니〉에 이어 KBS 프리미어가 준비한 두 번째 시리즈 공연이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1980~90년대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원조 한류 스타 김연자는 2017년 트로트와 EDM을 결합한 '아모르파티'를 히트시키며 연령대를 불문하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어머니의 계절'을 비롯해 가수 김연자의 지난 50년 음악 인생을 압축한 명곡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 5월 25일(토) 21시 15분 KBS2



‘호흡 척척’ 2024년 KBS 화제의 조합

시청자들을 찾아갈 준비를 마친 화제의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화려한 MC 군단과 새로운 주연 캐릭터의 조합은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유재석이 돌아왔다! 〈싱크로유〉 음악 예능의 신대륙? ‘AI 커버’ 도입



‘실제 가수일까?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가짜일까?’ MC들이 노래를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실제 가수인지 AI인지 판별하는 추리 음악 예능이다. 제작진은 ‘AI 커버’라는 새로운 소재를 방송에 과감히 입혔다. 제작진의 러브콜에 유재석은 화답했다. 〈컴백홈〉 이후 3년 만에 KBS 친정으로 복귀한 유재석과 가수 이적, 방송인 이용진·육성재, 아이돌 그룹 ‘세븐틴’ 멤버 호시,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공동 MC를 맡는다. 5월 10일과 17일 총 2회로 편성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무대에서 사용되는 AI 커버는 해당 음악가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찰떡궁합’ 공동 MC진… ‘출연진 호흡’은 복제 불가

AI 커버가 치밀하고 정교할수록, MC들은 강하고 끈끈하게 뭉쳤다. MC 6명의 찰떡궁합 조합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제작진은 〈컴백홈〉 당시 인연으로 유재석과 호흡을 맞췄던 이용진과 2011년 ‘처진 달팽이’로 유재석과 컬래버 경험이 있는 가수 이적을 최적의 조합으로 꼽았다. 1020세대를 공략할 인물도 필요했다. 지상파 예능 MC에 첫 도전하는 가수 카리나와 가수 데뷔 이후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 중인 호시, 빼어난 예능 감각으로 녹화 현장에서 ‘싱크로육’이라는 별명을 얻은 육성재까지 녹화장에서의 MC들의 호흡은 역시 탁월했다.

▶ 5월 10일, 17일 (금) 22시 KBS2

고물가 시대 쪼그라든 주머니… 펴드립니다! 〈하이엔드 소금쟁이〉



소비생활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살펴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경제 전문가의 솔루션을 얻는 〈하이엔드 소금쟁이〉가 5월 21일 첫 방송된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비’를 주제로 한 관찰 예능으로, 코미디언 양세형·세찬 형제와 가수 이찬원·조현아가 MC로 나선다. 경제 전문가로는 김경필 작가가 출연해 잘못된 소비 습관을 진단하고 소비 노하우를 전한다. MC 4인방 모두 자신의 재테크 노하우를 가감 없이 공개하는 한편, 양세형·세찬 ‘현실 형제’의 입담과 음악부터 예능까지 소화한 이찬원·조현아의 ‘핑퐁 토크’가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이다.

회초리·영수증 대신 제작진이 손에 꺼내든 ‘이것’

소비 습관을 진단하고 개선한다는 점에서 2017년 〈김생민의 영수증〉이나 2021년 〈국민 영수증〉과 결을 같이 하지만 방송 화법에선 차별점이 두드러진다. 모바일 앱이나 챌린지 영상 등 소비 내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최근 분위기에 맞춰 ‘가계부 브이로그’라는 콘셉트를 끌어왔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절약만 강조하기보다는 성공과 실패담을 나누며 맞춤형 소비법을 제시한다. 과거 〈국민 영수증〉이 돈을 안쓰는 것이 목표였다면 〈하이엔드 소금쟁이〉는 유익한 소비 정보와 돈을 잘 쓰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 5월 21일 (화) 20시 55분 첫 방송 KBS2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OTT 넷플릭스와 계약 체결

조선의 옛 모습을 간직한 가상의 마을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조선시대 유학 사상이 몸에 밴 청년 신윤복(김명수)과 의류 브랜드 디자인팀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고군분투하는 김홍도(이유영)가 만나 사사건건 얽히다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이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지만, 원작보다 드라마 분량이 긴데다 주인공 신윤복의 캐릭터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한 부분이 다르다. 코믹과 멜로의 장르적 특성을 균형 있게 녹여내고, 현대극에 조선시대 의상과 소품 등 사극의 장치를 얹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OTT 플랫폼 넷플릭스, 비키와 계약을 체결해 해외 시장도 겨냥했다.

▶ 5월 13일 (월) 22시 10분 첫 방송 KBS2

〈스카우트5 얼리어잡터〉 청소년 진로 탐색·교육 정보 제공 역할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스카우트5 얼리어잡터〉는 첫 방송에서 ‘얼리어잡터 신입사원 되다’를 주제로, 지난 시즌 출연했던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를 다룬다. 2023년 국내 첫 10대 소방관으로 이름을 올린 주가온 씨의 소방 훈련 현장과 ‘여성 용접 명장’을 꿈꾸며 국내 조선 회사에 입사한 엄은솔 씨의 하루를 소개한다.

시즌 4에서 활약했던 방송인 장성규·광희·조나단과 가수 우주소녀 멤버 다영 4인방이 MC로 다시 뭉쳤다. 전국의 579개 직업계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또래보다 한발 먼저 직업 세계로 뛰어든 주인공들의 삶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14년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별 필수 역량·교육 정보 제공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 5월 10일 (금) 19시 40분 첫 방송 KBS1

“아이돌이 먼저 연락”… 유튜브 콘텐츠 터졌다!



유튜브 ‘KBS Kpop’ 채널의 〈리무진 서비스〉와 ‘딩가딩가 스튜디오’의 〈스쿨킹〉, 〈딩가딩가 콘서트〉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K-POP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이 채널들의 매력을 파헤쳐본다.

이무진의 〈리무진 서비스〉, 아이돌의 숨은 라이브 실력 소개

팬들에겐 최상의 라이브 서비스를, 음악인들에겐 편하게 이야기하고 노래할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시작이었다. 〈리무진 서비스〉에는 매주 새로운 아티스트가 커버곡 2곡과 진행자인 이무진과의 듀엣곡 1곡 등 4곡을 라이브로 선보인다.

‘스트레이키즈’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멤버 ‘한’이 YB ‘흰수염고래’의 고음을 완벽하게 처리해 화제가 되었고, 맑은 음색과 시원한 가창력을 드러낸 ‘뉴진스’ 멤버 ‘하니’가 출연한 영상은 67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아이돌을 넘어 보컬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보컬이 아닌 멤버들도 출연해 숨겨진 라이브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아이돌들의 출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KBS 인기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딩가딩가 스튜디오’의 진화

청주총국에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 ‘딩가딩가 스튜디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카메라 1대와 스피커만 갖고 시작한 〈랜덤플레이댄스〉 코너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저격했다. 이후 〈스쿨킹〉과 〈딩가딩가 콘서트〉 등 새로운 코너를 선보였고, 이젠 전 세계를 대상으로 K-POP 문화를 알리고 있다. 무대도 전국적이다. 서울 명동·여의도,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까지 확보해 가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참여도 활발하다. 1020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랜덤플레이댄스〉에는 그룹 엘라스트, 가수 규빈 등이 팬들과 함께 댄스를 즐겼다. 고등학교를 찾아가 깜짝 공연을 펼치는 〈스쿨킹〉에는 그룹 하이키, 영파씨, 카디 등이 깜짝 미니 콘서트를 선사했다. 거리 공연을 펼치는 〈딩가딩가 콘서트〉는 가수들의 신곡 발매 전 선공개 채널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봄 개편, 라디오는 순항 중… 청취자 UP·제작비 DOWN



봄 수시 개편을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순항 중이다. 1FM과 2라디오의 개편 프로그램 반응을 살펴봤다.

1FM 진행자 교체 후 접속 및 검색 수 증가

지난 3월 〈윤유선의 가정음악〉(9~11시, 월~금)과 〈송영훈의 가정음악〉(9~11시, 주말)이 신윤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가정음악〉으로 개편됐다. 개편 직후 모바일과 인터넷 ‘콩(KONG)’ 접속과 검색은 각각 9%, 7% 증가했다. 윤수영 아나운서가 맡은 〈KBS음악실〉(11~12시, 월~일)도 각각 8%와 16% 증가했고 현재 안정적인 접속·검색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전달력 높은 아나운서들의 편안한 진행이 프로그램과 음악에 대한 청취자의 호감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 MC를 내부 아나운서로 교체한 만큼 약 18%의 제작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제작비는 줄이고 청취자는 증가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유튜브 조회수 급증

2라디오 수시 조정을 통해 신설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는 ‘신세대 트롯 여신’ 은가은의 자연스러운 진행과 방송 시간 내내 지치지 않는 댄스 열정 등으로 오후 2시 프로그램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시간 ‘콩(KONG)’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수는 KBS라디오 전체 프로그램 중 12위를 기록하며, 이전 프로그램 대비 8계단 상승했다. 또 ‘KBS KONG’과 ‘KBS 2라디오 HappyFM’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영상, 쇼츠 등을 다양하게 업로드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들까지 적극 공략하고 있다.

단신

‘KBS 미래비전 워크숍’ 실시

공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경기도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사장과 임원진, 본사 국장급 간부와 지역총국장 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KBS 미래비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KBS 생존전략〉과 〈KBS 콘텐츠 강화 전략〉, 〈KBS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의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조직·인사직급 제도 개편’과 ‘예능·드라마 경쟁력 강화 방안’, ‘콘텐츠 수익성 제고 방안’, ‘KBS 뉴디지털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수신료 위기와 광고 점유율 하락으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KBS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 국민 언어문화 개선” 문체부와 업무협약

KBS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3일 한국어연구회의 발족 41주년을 맞아 전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S와 문체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우리말 순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 조성 ▲수어·점자 정보 제작과 제공을 촉진하기로 했다.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박 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2821 / kbssabo@kbs.co.kr
편집인 김덕원 **취재** 김나미 윤영란 김태두 김만화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